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학 교 명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학년(반)		성 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1]이 60점, [문항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모의고사(인문계열)

■ 문항 1 [60점]

[논제] 대학 교육에서의 평가 방식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음>에서 하나만 택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1,000±100자, 60점)

< 다 음 >

과정 중심 평가	결과 중심 평가
수업의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학습자의 태도, 역동성, 협동성, 행동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최초에 설정된 학습 목표와 비교하여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가 달성한 성취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하되,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할 것.
3.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입시/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www.LegendStudy.com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제시문 >

(가) 반역, 쿠데타, 혁명에는 공통점이 있다. 목적과 수단이 어찌 되었든 기존의 정치권력을 빼앗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수반되는 행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혁명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사전적으로 혁명은 세 가지의 뜻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등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뜻한다. 두 번째는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을 뜻하고, 세 번째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어느 뜻으로 쓰이든 새로 들어선 권력이나, 새롭게 시행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반해 반역과 쿠데타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역의 첫 번째 뜻으로 제시된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이 아니더라도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이란 두 번째 뜻으로 봐도 그렇다. 그것은 반역이란 말 자체가 기존의 정치권력을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 계급끼리의 권력 이동을 위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쿠데타는 더욱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반역과 쿠데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영국의 저술가 존 해링턴은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말을 남겼다. 앞의 문장만 보면 반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성공한 반역'이다. '성공한 반역'은 결코 반역이라 불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불린다는 것인가? 기존 권력에게는 반역이었고, 성공하기 전까지도 반역이었지만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권력이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권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포장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테니, 반역이 성공하면 반역은 더 이상 반역이 아닌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그렇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군사정권을 이어가던 시기가 있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의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쿠데타로 성립된 정권이지만 이들의 일련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보았다.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를 사법부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통치행위에 이론을 잘못 적용한 이 주장은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법률적, 이론적 해석과 관계없이 이 주장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의 불법은 용인될 있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

모든 행위에는 목적, 수단, 결과가 결부된다. 어떤 행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수단이 된다. 또한 그 목적과 수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나타난 것이 결과가 된다.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가 나쁘면 나머지 둘이 좋더라도 그 행위가 폄훼될 수 있다. 반면에 어느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 둘이 나쁘더라도 모두 감춰지거나 용인될 수 있다. 반역, 쿠데타, 혁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이든 그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든 상관없이 그 평가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등학교『한국사』활용

(나) 어떠한 일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일에 미친 영화감독과 공부 자체에 미친 학생은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준다. <왕의 남자>로 한국영화 역사상 세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주인공인 이준익 감독은 2015년

<사도>로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에 제작비 5억 원으로 만든 초저예산 영화 <동주>를 발표한다. 사실 그가 만들어온 영화들은 대체로 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대중영화들이었다. 투입된 예산과 흥행 성적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예산 영화로 전편의 흥행 성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가 <사도>를 개봉하자마자 곧바로 <동주>라는 저예산 영화 작업에 돌입한 이유는 뭘까? 이준익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영화라는 것이 투입된 예산에 따라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영화라는 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두 가지 균형 안에서 잘된다는 걸 20여 년 전부터 영화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몸소 체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화에 대한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항상 남아 있었죠. 그 추구가 20여 년 만에 드러난 작품이 <동주>구요. 결과 이전에 과정에 정말 만족해요. 결과가 과정보다 더러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요. 영화란 공동 작업이고 협동심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스태프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배우들이 함께 하게 돼요. 그들은 현장에서 협동심을 발휘해 주어진 예산이 메우지 못하는 자리를 정신과 몸으로 메워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창작을 위한 고통이란 말은 말이 안돼요. 자기가 좋아서 즐기며 하는데 그건 고통이 아니죠."

미국은 엄연한 학력사회이다. 일본의 학력 중시 풍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실 학력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이 훨씬 심하다.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어떤 학위를 받았는가 하는 경력은 취직할 때 급여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를 악물고 학위를 받고 졸업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미국 MIT 대학 안에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 미디어랩에는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 수두룩하다. 보통 석사학위 2~3년, 박사학위 3~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학부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20년 넘게 계속 MIT 미디어랩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을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미디어랩이나 기업스폰서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언제라도 학교를 나가 취직하면 1억 원 이상의 연봉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몇 년 동안 밤을 꼬박 새워가며 프로그램의 버그를 찾고, 땜질을 하고 있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도대체 그들이 이러한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학위? 명예? 아니면 장래에 보장 받을 수익 때문에? "아니오, 그냥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도 이렇게 대답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 급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산은 아무래도 서툰 것 같다.

"졸업이요?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좋아요." "직업이요? 아직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 랩의 졸업생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지털 기술 관련 스폰서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에는 자신의 기술과 비전,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승부를 벌이는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정착되고 있다. 미디어랩 학생들에게서는 세상의 흐름을 좇는 약삭빠름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결과물을 내어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들처럼 세상 물정에 상관없이 흥분되는 대상에 몰입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미디어랩이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이준익 감독이 흥행감독이 아니었으면 그가 한 말은 열정으로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간 한 사람으로 남을지 모른다. 뛰어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졸업을 미루는 미디어랩 학생은 실패자로 낙인찍힐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행복해 보이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이 보인다.

고등학교『사회』활용

(다) '졌잘싸'와 '이못싸'는 줄임말을 좋아하는 유행이 반영된 말이기도 하지만 운동경기에 대한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태도가 드러나는 말이기도 하다. ‘졌잘싸’는 ‘졌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이고, ‘이못싸’는 ‘이겼지만 못 싸웠다’의 줄임말이다. 축구경기를 예로 들어보자. 경기를 전후반 90분 동안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펼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 감독의 전술도 훌륭했고 선수들의 호흡도 잘 맞아떨어져 결정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운이 부족해 골을 넣지 못해 점수로는 패했을 때 ‘졌잘싸’라고 말한다. 반대로 지지부진한 경기를 펼쳤지만 운이든 상대편의 실수든 골을 넣어 점수로는 이겼을 때 ‘이못싸’라고 말한다. 이런 팬들만 있다면 선수나 지도자, 그리고 구단 모두 힘이 날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인 히딩크 감독은 한때 ‘오대영’이란 별명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큰 기대를 안고 거액을 투자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는데 부임 초의 성적은 참담했다. 평가전에서 연거푸 5대0으로 지자 급기야 ‘오대영’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게다가 성질 급한 이들의 눈에는 히딩크 감독의 조련 방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공은 버려둔 채 왕복달리기만 하고, 공을 가지고 한다는 게 겨우 족구였다.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 축구인데 슈팅 연습은커녕 패스와 수비 연습에 온통 시간을 쏟고 있었다. 누군가 성급했다면 4강 신화는 없을 뻔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렸더라도 4강까지 오른 성적이 아니었다면 히딩크 감독은 명장이 아닌 ‘먹튀’, 즉 높은 연봉만 받아먹고 튀어 버린 감독이 될 뻔했다.

프로야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로야구 감독들은 ‘파리 목숨’에 비유되기도 하고, 늘 하위권인 특정 팀은 ‘감독들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2년이든, 3년이든 감독들도 계약기간이 있지만 성적이 나쁘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교체가 된다. 승부를 가려야 하는 스포츠의 세계이니 지는 팀도 있으면 이기는 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순위를 매기다 보면 일등부터 꼴찌까지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수들의 수준 높은 플레이와 경기의 내용을 즐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성적에 목숨을 거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후자의 목소리가 더 큰 법이어서 성적을 내지 못한 감독은 결코 명장이라 불릴 수 없다.

요리는 또 어떤가? 여기 요리의 모든 과정에 걸쳐 고르게 능력을 갖춘 요리사가 있다고 하자. 이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선택해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손질한다. 조리도구와 불을 적절히 활용하는 조리법도 뛰어나고 먹음직스럽게 그릇에 담아 상에 차려내는 능력도 출중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맛이 없다. 또 다른 요리사는 모든 게 서투르고 엉성하다. 좋은 재료를 고를 줄도, 적절하게 손질할 줄도 모른다. 조리기구나 불도 잘 다룰 줄 모르고 만든 음식을 멋지게 차려낼 줄도 모른다. 그런데 음식의 맛만큼은 뛰어나다. TV쇼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손님들의 판단은 단호하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맛이 없는 음식은 요리가 아닌 것이다.

고등학교『사회』활용

(라) 플라톤의『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일의 과정과 결과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가령 어떤 물건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와 그 물건을 훔쳐서 갖게 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는 갖고 싶은 물건을 얻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덕률에 비추어볼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힘으로 물건을 얻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얼마나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가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과정은 결과와 달리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이어지기에 매 단계마다 좋은 삶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사고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스포츠 시합의 경우 결과만 따진다면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고, 이때의 좋은 결과란 결국 승리만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만약 시합 과정을 중시한다면 매 순간의 과정이

얼마나 스포츠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는지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약물반응 테스트에 걸려 실격하는 선수가 나오게 되면 올림픽위원회는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에게 비윤리적인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물리고 메달도 박탈한다. 이것은 올림픽의 페어플레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결과보다는 과정이 바람직한 인간사회의 가치와 도덕을 지향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결과만을 따지는 성과위주의 평가방식을 선호한다. 가령 학교에서는 수업과정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성적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직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애정보다는 실적과 수치로만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한다. 과정을 중시할 때는 점차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능력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에서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또한 결과를 중시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를 하게 되고 서로간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아무도 느긋하게 자기만의 속도와 재능을 즐길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결과에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만이 있을 뿐이기에 최종적으로는 오직 승자나 일등만이 좋은 결과가 주는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결과를 중시하여 경쟁적으로 성적과 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면 결국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낙오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소수만이 좋은 결과가 주는 행복감을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루저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난 십 여 년 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사회가 결과를 중시하는 경쟁체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일에서는 결과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기위해 들리는 수많은 간이역에 있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윤리와 사상』활용

(마) 저만치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 궤도차량이 달려온다. 그런데 차량이 조금 뒤 지나가게 될 선로 위에서 다섯 명의 어린이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천진하게 놀고 있다. 이대로라면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섯 사람의 생명이 스러질 것이다. 당신은 마침 앞에 있는 선로 변경기를 발견한다. 레버를 당겨 선로를 변경하면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뀔 새 선로 위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인부가 작업 중이다. 다섯 명 대신 그가 죽게 된다. 당신은 선로 변경기를 당길 것인가?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레버를 당겨 선로를 변경시킨다'와 '선로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우리는 두 견해 각각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근거를 댈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견해를 선택하든 분명한 것이 있다. 누가 이 문제를 생각하든 그의 마음속에서는 "당기는 것과 당기지 않는 것, 두 가지 결정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물음이 고려된다는 사실이다. 인간 사회가 발달시켜 온 합리적 정신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아마도 그것이 인간이라는 생물종이 이처럼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주의(公利主義, utilitarianism)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등이 체계화한 공리주의는 현대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필수불가결한 판단의 관점을 제공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식화되는 공리주의의 관점은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각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물론, 어떤 행위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가능한 만큼 결과를 예견하고, 그렇게 예견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행위를 평가할 때 결과보다 동기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선한 동기나 공정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동기나 과정이 좋은 결과를 산출할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일 뿐이다. “아름다운 실패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는 말은 멋지게 들린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훌륭한 의도에서 비롯된 정의로운 실패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경우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실패의 사례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과 정의로운 실패와 정의로운 성공을 동등하게 여기는 일은 다르다. 전자는 사회를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후자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의로운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와 정의로운 성공을 거듭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어디엔가 속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성공을, 좋은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좋은 결과가 생산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성공을 중시하기를 죄악으로 여기는 것은 왜곡된 관념이다.

또 결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동기나 과정을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 다양한 원칙과 관점이 대립할 경우 우리는 평가의 방식을 합의하는 일에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결과를 평가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결과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대개 객관적으로 판명된다. 객관적으로 판명 가능한 기준을 버려두고 합의하기 어려운 과정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공정성을 실현하는 쉬운 길을 내버려두고 이상화된 공정성의 허상을 좇는 일에 불과하다.

고등학교『윤리와 사상』활용

논술모의고사(인문계열)

■ 문항 2 [4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자료> 중 적절한 것을 활용하여 <다음>의 1)~3) 세 가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700±100자, 40점)

<다 음>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중요하다. 기업이 기술 진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하며, 연구인력 양성과 유치에 힘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1) <자료>에 제시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2016년을 기준으로 투입 가능 자원을 연구·개발에 배분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15점)

2) 2010~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① 1인당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과 ② 1인당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은 감소하였다. (10점)

3)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여성 비율이 낮지만, 연구·개발직의 모든 계열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비율은 높아진다. (15점)

고등학교『경제』활용

<자료 1> 국가별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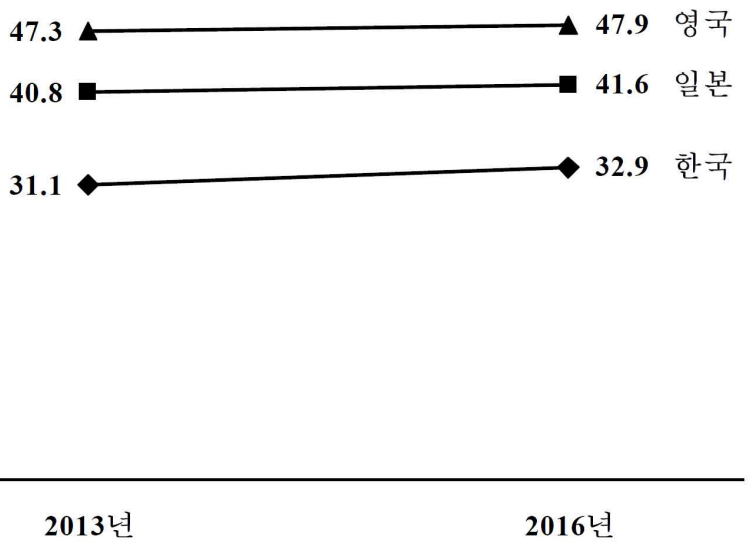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국가	2013년		2016년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한국	50.4 (0.6%)	25.9 (1.5%)	51.2 (0.5%)	27.2 (1.7%)
일본	127.4 (-0.2%)	65.8 (-0.1%)	127.0 (-0.1%)	66.5 (0.4%)
영국	64.1 (0.7%)	32.4 (0.8%)	65.6 (0.8%)	33.2 (0.9%)

자료: 통계청,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과거 3년치 연평균 변화율임.

<자료 2> 국가별 노동생산성

(단위: 달러/시간)



자료: OECD
주1. 노동생산성은 국가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임.

<자료 3> 국가별 연구원 및 여성연구원 수

(단위: 천 명)

국가	2013년		2016년	
	연구원 수	여성연구원 수	연구원 수	여성연구원 수
한국	410.3	74.6	460.8	90.6
일본	892.4	130.6	917.7	144.1
영국	466.7	177.8	496.5	191.7

자료: OECD

<자료 4> 국가별 GDP 및 연구・개발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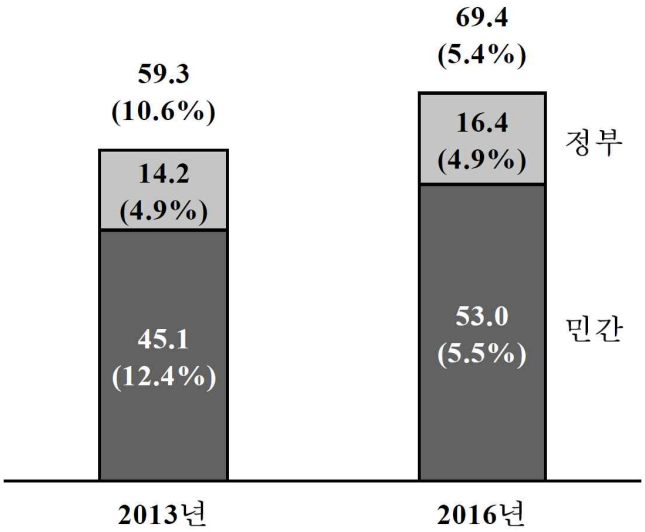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국가	2013년		2016년	
	GDP	연구・개발 투자액	GDP	연구・개발 투자액
한국	1,305.6 (6.1%)	54.2 (12.6%)	1,411.0 (2.6%)	59.8 (3.4%)
일본	5,155.7 (-3.3%)	170.9 (-1.5%)	4,949.4 (1.4%)	155.4 (-3.1%)
영국	2,719.5 (3.8%)	45.1 (3.5%)	2,618.9 (1.2%)	44.8 (-0.3%)

자료: 통계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과거 3년치 연평균 변화율임.

<자료 5>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액

(단위: 조 원)



자료: 통계청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과거 3년치 연평균 변화율임.

<자료 6> 우리나라의 학력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학력	2013년		2016년	
			취업자 수	여성 비율	취업자 수	여성 비율
전체 취업자		고졸 이하	14,624	45%	14,604	45%
		대졸 이상	10,676	38%	11,805	39%
		계	25,299	42%	26,409	42%
연구·개발직	전체	학사/기타	199	16%	228	17%
		석/박사	212	20%	233	22%
		계	410	18%	461	20%
	이공계	학사/기타	185	13%	209	14%
		석/박사	180	18%	199	19%
		소계	364	15%	407	16%
	인문 사회계	학사/기타	14	51%	20	54%
		석/박사	32	36%	34	39%
		소계	46	40%	53	44%

자료: 통계청
주1.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논술모의고사 (인문계열)

논술모의고사 (인문계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640

680

720

760

800

840

880

920

960

1000

1040

1080

1120

1160

1200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1240

1280

1320

1360

1400

1440

1480

1520

1560

1600

1640

1680

1720

1760

1800